

## 宋季元明理學通錄序\*

考亭<sup>1)</sup>이 도학을 倡導하니 문하에 제자가 심히 많았다. 그러나 그 학문 사적은 유실되어 전하지 않는 것이 많다. 이제 여기 모아서 엮어 기록하는 데에 의거하고 믿을 만한 것은 宋史에 本傳이 있는 외에는 오직 朱子實記와 語類, 大全, 一統誌<sup>2)</sup> 등의 책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기와 일통지는 사실의 기록이 본디 소략하고, 어류와 대전은 또한 처음부터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다. 그 밖에 誌, 銘 등의 글은 얻기가 더욱 어렵다. 그런 즉 여러 제자의 학행과 지업을 장차 무엇에 근거하여 찾아볼 수가 있겠는가?

내가 생각하건대, 공자·맹자 문인들에 대하여 그 도학의 옳고 그름과 높고 낮음, 잘하고 못함이 더러는 스승이 가르치고 깨우치는 말씀에서 抑揚(꾸밈음과 칭찬함)과 進退(격려와 제어)가 있음을 보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주자의 여러 제자에 대해서도 마땅히 이것을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다행히 史傳이나 誌·銘 등속이 있는 것은 먼저 이에 의거해서 사실을 서술하고 겸하여 어류, 대전에서 보충하면 진실로 완비될 것이다(마치 이 卷의 黃勉齋<sup>3)</sup> 등의 諸子史傳, 何叔京<sup>4)</sup>의 碣銘, 程正思<sup>5)</sup>의 墓表

---

\* 퇴계학연구원, 『退溪學 譯註叢書』 제13권(1996)에서 발췌·수록한 것임

- 1) 考亭 : 원래 중국 福建省 建陽縣 서남쪽에 있는 마을 이름인데, 주자가 만년에 여기 은퇴하여 竹林精舍를 짓고 제자들에게 유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주자 또는 그 학파를 가리키기도 한다.
- 2) 語類·大全·一統誌 : 朱子語類·朱子大全集, 大明一統誌의 약칭. 이하도 같다.
- 3) 黃勉齋 : 黃幹의 칭호.
- 4) 何叔京 : 이름은 鎬, 속명은 그 자.

같은 유가 이것이다. ○ ‘무릇 사전과 지명이 있는 것은, 비록 실기에 나오더라도 실기를 생략한 것은 그 상세한 것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없는 것은 다만 실기 가운데 실린 바로써 앞에다 사적을 간략히 서술하고, 두 책 [어류와 대전] 에 스승의 가르침이 나타난 것을 이어서 기록하면, 그 인품과 학문의 대강을 알 수 있을 것이다(마치 이권의 輔慶源<sup>6)</sup> 이하 4권의 陳彦忠<sup>7)</sup>까지, 모두 사전과 지·명에 없는 것 같은 유가 이것이다.).

이 세 책 가운데 두 책에 나오고 한 책에 빠진 것(마치 5권 金敬直 이하 鄭信之까지는 실기와 어류에 나오고, 6권 劉雲莊 이하 7권 李伯諫까지는 실기·재전에 나오고, 蔡伯靜 이하 甘叔懷까지는 어류·대전에 나오는 것 같은 유가 이것이다.)<sup>8)</sup>이나, 한 책에 나오고 두 책에 빠진 것(마치 陳復齋에서 趙南紀까지는 실기에 나오고, 遊連叔에서 周貴卿까지는 어류에 나오고, 8권의 石子重에서 池從周까지는 대전에 나오는 것 같은 유가 이것이다.)<sup>9)</sup>도 각각 유에 따라 기록한다.

또 실기에 성명만 있고 두 책에 스승의 말씀이 없는 이는 생략할 법도 하나 일찍 先儒가 문인의 반열에 기록하였으니 또한 감히 빠뜨릴 수가 없다(마치 鄭成叔<sup>10)</sup>에서 劉子晉까지 이른 것 같은 유가 이것이다.). 또 다른 책에는 나오지만, 세 책에 안 나오는 몇 사람도 끝에다 함께 기록하였다(마치 張叔澄에서 吳梅卿까지 이른 것 같은 따위가 이것이다.).<sup>11)</sup>

5) 程正思 : 이름은 端蒙, 호는 蒙齋, 정사는 그 자. 주자가 墓誌를 지었다.

6) 輔慶源 : 이름은 廣, 자는 漢卿, 호는 潛庵. 경원은 출신 지명.

7) 陳彦忠 : 이름은 士直.

8) 김경직의 이름은 去爲, 정신지의 이름은 性之, 초명은 自誠. 유운장의 이름은 燾, 이백간의 이름은 宗思, 채백정의 이름은 淵, 감숙희는 臨江(지금 복건성 淸江) 關阜 사람이다.

9) 진복재의 이름은 密, 조남기의 이름은 希漢, 유연숙의 이름은 敬仲, 주귀경의 이름은 良, 석자중의 이름은 曷돈이고, 지종주는 자가 子文이다.

10) 정성숙은 이름이 文通, 호는 庸齋이고 성숙은 그 자.

11) 장숙정은 이름이 彦淸, 오매경은 자가 淸叔이고, 호는 謙齋.

혹 책에 취록한 것이 많은 것은 좋으나 精選되지 못한 것을 의심할 이도 있겠으나 그런 것이 아니다. 대저 이 책을 만드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알고자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도학의 요지를 밝히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더구나 당시에 ‘僞學’<sup>12)</sup>을 금함이 세상을 휩쓸었는데도 이 여러 인사는 뜻을 분발하여 도를 지향하고, 禍福을 돌보지 않고 주자의 문하에 들어 수업을 청하였으며, 글을 올려 의심나는 것을 질문하여 스승이 가르친 취지를 드러나게 하였으니, 비록 그 사람의 의심하는 바와 질문하는 바가 조예와 소견에 따라 같지 아니하였지만 선생의 답한 바는 때로는 누르고 때로는 치켜올리며, 때로는 앞으로 가게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게 한 것이 지극한 가르침이 아닌 것이 없었다. 이것은 지극한 가르침이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이니 이를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이 어찌 이 道를 유익하게 하는 데로 귀결하지 아니하겠는가?

맹자가 이르기를 “楊子와 墨子를 막을 것을 능히 말하는 자는 聖人の 門徒다” 하였으니, 나 또한 “考亭의 도를 높이는 자는 이 또한 고정의 문도다” 라고 하겠으니, 알지 못하겠으나 후세의 논자는 어떻다 하겠는가?

---

12) 僞學 : ‘거짓된 학문’이란 뜻으로 南宋의 寧宗 때에 주자학을 탄압하기 위해 붙인 이름.